

통계로 본 세계속 한국 농업 OECD 30개 회원국과의 비교

경지면적 95위 곡물수확 10위
채소생산 11위 젓소유량 9위

농림부는 농가인구, 경지면적, 작물생산량, 축산물생산량, 농림축산물수출입 등의 농업관련 주요지표를 세계 200여국 및 OECD 30개 회원국과 비교한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을 발간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은 영세한 농업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인구는 세계 66위, 경지면적은 95위,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39위로 농업환경은 영세한 실정이지만, 생산성이(곡물단위당 수확량 10위) 높아 곡물생산량 40위, 채소생산량 11위, 과일생산량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에도 소의 두당 도축중량이 2위, 젓소의 두당 산유량이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입개방 여건 속에서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04년도에는 전년대비 12.1% 증가, 40위에서 1계단 상승,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하여 36위에서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통계 항목별로는 농가 인구는 3,414천명으로 세계 66위(OECD 회원국중 6위)로 나타났다으며, 경지면적은 2003년 기준 185만ha로 세계 95위(OECD 회원국중 21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경지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6. 05. 23. / 수의축산신문 -

